

## 사노피, 세계 예방접종주간 맞아 'DTaP 혼합백신 10 년사' 인포그래픽 제작, 사내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

- \* 영아 기초예방접종 DTap 혼합백신 도입 10 년사 인포그래픽 제작, 임직원 대상 배포
- \* 사노피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 'AcXim(악심)'의 국내 영아 예방접종 기여 및 혼합백신의 가치 전달

대한민국 서울, 2022년 4월 21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(이하 사노피)은 세계예방접종주간(매년 4월 마지막 주/ 2022.4.24~4.30)을 맞아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DTap 혼합백신에 대한 사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캠페인은 사노피의 DTap(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) 혼합백신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기초예방접종률, 혼합백신의 개발 및 국내 사용 현황, 혼합백신의 가치 등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임직원에게 비대면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인포그래픽은 지난 2012년 국내 필수예방접종사업에 4가 DTap 혼합백신 '테트락심주'를 첫 도입한 이후, 5가 DTap 혼합백신 '펜탁심주'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공공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사노피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알리고자 제작됐다. 인포그래픽에는 ▲ 데이터로 보는 국내 기초예방접종률 ▲ 국내 DTap 혼합백신 도입 10년사 ▲ 국내 DTap 혼합백신 10년 사용량 ▲ 영아 DTap 혼합백신 접종 스케줄 및 접종 횟수 등의 정보를 담았다.

혼합백신은 하나의 백신으로 여러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접종횟수를 줄여주고 복잡한 기초예방접종 스케줄을 간소화하여 적기 접종률을 높여준다는 이점을 갖는다. 4가 DTap 혼합백신은 4가지 질환(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폴리오(소아마비, IPV))을 하나의 백신으로 예방하며, 단독 백신으로 접종 시 최대 6회에 이르는 접종 횟수를 단 3회로 줄인다. 또한 5가 DTap 혼합백신은 5가지 질환(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폴리오(소아마비, IPV)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(Hib))에 의해 발생하는 침습성 감염증을 예방하며, 단독 백신으로 접종 시 최대 9회에 이르는 접종 횟수를 단 3회로 줄인다. 지난해 4월, 국내에 출시된 6가 DTap 혼합백신은 5가 DTap 혼합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질환에 'B형간염' 항원을 추가한 백신으로,<sup>9</sup> 개별백신 접종 대비 접종횟수를 최대 8회 감소시킨다. 단, 6가 DTap 혼합백신은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,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으로 사용 중이다.

사노피 'AcXim(악심) 패밀리'는 60여년의 소아용 혼합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노피의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로, 4가 DTap 혼합백신 테트락심주, 5가 DTap 혼합백신 펜탁심주, 6가 DTap 혼합백신 핵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<sup>®9</sup>를 포함하고 있다. 테트락심주는 2012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된 후,<sup>4</sup> 2, 4, 6개월 영아 기초예방접종으로 사용되었다.<sup>5</sup> 이후 2017년 펜탁심주가 출시되면서 대부분의 기초예방접종에 펜탁심주가 사용되고 있다. 2020년 질병청 데이터에 따르면, 2019년 출생아의 94.3%가 5가 DTap 혼합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테트락심주는 기초접종뿐만 아니라, 만 4세~6세

추가 접종에도 사용 가능하며, 국내 4 가 DTaP 혼합백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이다.(2021 년 4Q 기준) 6 가 DTaP 혼합백신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®는 2, 4, 6 개월 영아 대상 유료로 사용 중이다.

### 시락 바트(Bhatt, Chirag) 백신사업부 마케팅 이사

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

*“영아 예방접종은 기초 면역을 형성하고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첫 발걸음인 만큼 그 어떤 예방접종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사노피는 지난 10 년 간 혁신적인 DTaP 영아 혼합백신을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현재 DTaP 혼합백신 포트폴리오인 ‘AcXim(악심) 패밀리’를 구축, 원활하게 공급해 왔다”고 말했다. 그는 또한 “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 4 가 혼합백신 테트라심주, 5 가 혼합백신 펜탁심주에 이어 6 가 혼합백신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®를 통해 아기들이 감염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*

사노피는 10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으로서 매년 10 억 도즈 이상, 5 억 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, 17 여 가지의 감염성 질환(콜레라, 디프테리아, 소아마비, 백일해, 파상풍, A 형 간염, B 형 간염, 수막구균, 인플루엔자 등)을 예방하는 폭넓은 백신을 생산·공급하고 있다. 또한 60 년 이상 소아용 혼합백신 개발 역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혼합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키며, 영아의 기초 면역 형성 및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있다. 사노피는 지난 30 여 년 간 국내 제약사 및 주요단체, 보건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며, 국내 주요 백신 공급원으로 한국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.

### 사노피(Sanofi)에 대하여

사노피는 ‘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’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.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(practice of medicine)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,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.